

CHRISTMAS IS VERY ORDINARY (22nd December 2019, Lindfield) 한글 번역

LUKE 1:26-35,38 (Pastor Neil)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해야 할 일, 생각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가족들이 우리 집에 올까? 크리스마스 점심으로 뭘 먹을까? 가뭄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격이 폭등했기에 칠면조나 해산물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야외에서 먹기에는 날씨가 너무 더울까?

반면에 어려워진 관계를 고민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의 커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남자친구; 항상 술을 많이 마시고 말다툼을 일으키는 삼촌; 파트너나 아이를 잃고 그들 없이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누군가. 장식품, 선물 구입, 특별한 음식 등등.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일년 중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꼭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평범한 것 들로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것의 특별함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마태는 마리아와 요셉이 하려던 영예로운 결정들을 잘 언급하지 않지만 누가는 이 사실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소녀입니다. 신실했고 영적이었으며 12-15 살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 갑자기 선별되었지요. 마리아와 같은 조건을 가진 소녀들은 그 지역에 백명도 넘게 더 있었을 정도로 평범한 소녀였지만, 마리아는 이 일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들이었습니다. 당시 양치기들은 대부분 게으르고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편견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 마리를 찾기 위해 99 마리의 양을 남겨둔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좋은 목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헤롯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천대받던 보통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도 아주 평범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평소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곳에는 산파도 마리아의 어머니나 자매도 없었습니다. 약혼자 요셉과 몇몇 동물들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감염으로 돌아가시지 않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어머니에 의해 주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첫 아들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나야만 했던 마리아의 처지가 불쌍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못한 처지에서 아이들을 출산하는 어머니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파푸아 뉴기니의 마누스 섬이나 나우루 수용소에서처럼 말이지요. 그들은 출산 중 뭔가 잘못되더라도 그 어떤 적절한 치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범한 탄생은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범한 탄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기 위해 신앙이 특별해야 하거나 특별하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 만남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편견 없는 대화와 인종차별, 비판, 악의, 선입견들을 배제하며 나누는 이야기들은 세상적인 가치들에게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미디어들은 많은 종류의 플랫폼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전할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이면 됩니다.

양치는 목자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평범하기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의 말들을 들음에 그치지 않고 직접 확인하러 나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한치의 틀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단지 들음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들음을 행함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기도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며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과 같이 크리스마스를 특별한 시간으로 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긴 평범함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이 천년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